

전북자치도교육청으로의 새출발... 더 특별한 전북교육

실력·바른 인성 함양

전북도교육청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의 새출발과 함께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9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더 특별한'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에 의지를 다졌다. 그동안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기틀을 다졌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올려 전북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서 교육감의 의지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선정한 10대 핵심과제는 더욱 심화시켜 학교 현장 안착을 돕고,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과 함께 교육 협력을 강화해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9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전북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 성과 공유



민원상담실 현장 방문



고3 담임교사 연수



국제교류 수업



문예체 교육 강화

▲기초학력을 넘어 기본학력 신장

학력신장은 2024년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핵심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힘썼다면 올해는 기초학력을 넘어 기본학력 신장을 추구한다. 올해는 '학력신장을 위한 기반 마련'과 '단위학교 지원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학습지원에 나선다. 학습 플래너 제작 및 AI 기반 코스웨어 개발, 학생 1인 1학습매니저 학습지원 앱(App) 운영, 교사 학습코칭 전문성 신장 지원, 학력향상 도전학교 운영 등이 그것이다.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학력향상 도전학교'도 운영한다. 학력향상 도전학교에서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2월 말부터 4월 까지 실시한 후 학년별·교과별 성취수준을 1~4수준으로 진단·분석하고, 학교별 맞춤형 학력향상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오는 3월 실시된다. 올해는 초2~고1까지 치러지며, 6월·9월·12월에는 향상도 검사를 실시한다.

▲교육활동 보호로 바로 세우는 전북교육

2024년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 교원 치유 지원도 강화한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단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14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 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권역별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로 변경 가입해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설치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진단, 상담, 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대형 병원 및 신경정신과학과 전북지부와 협약을 맺어 진료기관을 대폭 기존 33개에서 73개로 대폭 확대했다.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만드는 학교' 축제를 개최하고, 교사·학부모 공감 동아리도 운영하면서 교육가족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

유치원 및 초·중등 학교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강화된다. 초등 맞춤형 창의·융합수업을 위한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 중등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수업 성장 연수, 수업 혁신 지원단과 수업 평가 혁신 교육혁신공동체 운영이 대표적이다.

맞춤형 학습지원 통해 기본학력 신장

올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보완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위한 연수 강화 에듀테크 교육 지원 활성화로 수업 혁신을 학생 해외연수 2800명 규모로 운영 인성교육 중점학교 300곳 지정·운영 문예체 교육 강화·책 읽는 문화 조성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현안 적극 대응

단위학교 수업나눔 연수회 지원, 중등 수업혁신 네트워크, 수업 혁신을 위한 수업 공개, 지역 수업나눔 공동체 운영, 수업 박람회 등을 통해 교원들의 수업 연구 문화도 활성화한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수업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에듀테크 교육 지원을 활성화한다.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모든 학생에게 100% 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되는 만큼 디지털 기반 교육 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선도학교를 51개교 운영하고, 디지털 교육지원센터·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지원단·AI 디지털 교과서 학습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을 지원한다.

▲국제적인 시야 키우는 학생해외연수 고도화

2024년 학생 해외연수는 지난해보다 400여명 증가한 2,8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학생 해외연수는 해외 문화체험, 해외 현장체험학습, 글로벌 캠프, 글로벌 인터십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해외 문화체험, 국제교류 수업 연계 현장 체험학습, 고등학생 대상 글로벌 수학탐험대, 중학생 대상 NASA 글로벌 캠프, 글로벌 리더십 캠프, 디지털·AI 미래 드림 캠프 등이 준비돼 있다. 국제교류수업 학교 운영도 계속된다. 2024년 국제교류수업 학교는 '온라인 교류수업형', '해외 방문 교류수업형', '해외 학교 초청 교류수업형'으로 유형화하고, 학교별 상황과 조건에 맞게 지원해 국제교류수업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국제교류수업 운영 학교에는 해외 학교와의 원활한 교류 및 안정적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당 2회의 컨설팅도 지원한다.

▲평화롭고 안정된 학교에서 바른 인성 함양

존중과 배려, 따뜻한 감성을 키우는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300개 학교를 인성교육 중점학교

로 지정해 학교별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인성교육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인성 함양을 위한 문예체 교육도 강화한다. 먼저 국어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문해력 중점형 1곳과 독서 중점형 2곳을 선정해 국어사랑 마음을 키워나간다.

책 읽는 학교 문화도 조성한다. 200개 학교에서 테마별 학급독서를 운영하고, 독서교육을 지원한다.

시(詩) 페스티벌과 인문학으로의 초대, 청소년 인문학상 연계 캠프 등을 열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준다.

체육교육과 예술교육도 다양해진다. 167개 학교에서 한 종목씩 골라 운동을 하는 1인 1스포츠를 활성화하고, 160개교에서 하루를 신명나게 시작하는 '아침운동 신명나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역과 손잡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자체와의 교육 협력을 더욱 탄탄하게 가동해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교육 현안 해결에 나선다.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과 함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마을교육생태계를 구축한다. 학교 안과 밖의 공간적 구분을 넘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만든다. 교육청과 14개 시군이 1대1 대응투자를 통해 지역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력을 높이는 전북교육협력지구로 조성한다.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위해 노력한다. 익산, 남원, 원주, 무주, 부안, 순창, 임실 등 7개 지역을 묶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한다. 농촌유학은 13개 시·군 31개 학교에서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이 30만원,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가 20만원 등 총 50만원을 매월 체재비로 지원해 농촌유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외에도 글로벌특성화고 육성,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운영, 공론화(집중)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협력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이 오는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면서 "이제 전북은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전북의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으로 전북을 우뚝 세우겠다"면서 "교육만큼은 '전북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준높은 교육, 명품 교육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